

조선대 명예 박사학위 2제

호남 발전·동서 갈등 해소 앞장

한·일 민간 외교·화합에 기여

정의화 한나라당 의원

“동서화합 없이 국가의 미래가 없다는 생각에 동서 갈등 해소에 앞장서 왔습니다.”

부산 출신 한나라당 정의화(부산 중·동구) 의원이 영·호남 지역갈등 해소와 호남 지역 발전을 위해 앞장서 온 공로로 25일 조선대학교에서 명예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정의 의원은 이날 “동서화합을 위한 노력의 진정성을 이해해줘 감사하다”며 “조선대 동문으로서 국민을 위한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차기 한나라당 원내대표에 도전하는 4선의 정의 의원은 영남 출신 정치인으로는 드물게 호남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해 왔다.

부산고와 부산대 의대를 나온 정의 의원은 1970년대 중반 전북 전주에서 한 병원에서



근무하며 호남과 첫 인연을 맺었다. 정치에 입문하기 이전인 1991년 ‘영호 남민간인협의회’를 창립해 광주와 부산지역의 기업인·언론인·예술가 정기 교류 등

민간 차원의 동서갈등 해소에 앞장섰다. 2004년부터 당내 지역화합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영·호남 교류 화합에 노력하고 있다.

그는 또 지난 2006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여수박람회 유치를 이바지했다.

지난해 12월에는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위원장으로 위촉돼 하계 U대회 광주 유치 지원을 위한 정부와 청와대·여당과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정의 의원은 이같은 공로로 광주시와 여수시로부터 ‘명예시민증’을 받았다.

조선대는 “영남 출신 정치인으로는 드물게 호남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한 공적을 알리 영·호남 화합의 의미 있는 선례와 상징을 학교와 사회에 남기기 위해 정의원에게 명예 정치학박사 학위를 수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쿠시마 전 와세다대 총장

일본 대학 개혁의 상징으로 일컬어지는 오쿠시마 다카야스(70)세다대학 총장이 조선대학교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았다.

조선대는 25일 오전 자연과학대학 대강당에서 열린 ‘2008학년도 대학원 학위 수여식’에서 오쿠시마 전 총장에게 명예경영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오쿠시마 전 총장은 와세다 대학이 세계 속의 명문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는 등 뛰어난 경영능력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한·중·일 민간외교, 한·일 화합에 기여한 공적이 높게 평가돼 학위를 받게 됐다.

그는 지난 1994년부터 2002년까지 총장(14대)으로 재직하면서 와세다대학의 세계화와 재정의 건실화에 지대한 공적을 남겼으며, 이 같은 업적으로 인해 세계 48개 대학으로부터 명예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1997년 조선대 방문을 계기로 양 대학의 교류협정을 이끌어냈다. 조선대는 12년 전 오쿠시마 전 총장의 지도 아래 와세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

은 현 조선대 서성호교수가 경상대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중인 점을 감안, 그에게 명예경영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오쿠시마 전 총장은 이날 학위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역사를 회고해 보면 16세기초까지 일본 문물의 많은 것을 포함해 일본 교양의 거의 모든 부분은 조선으로부터 도래했다”면서 “그 긴 우호관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1945년 패전할 때까지 40년 가까이 조선을 지배 하에 두고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한 죄를 범해온 것에 충심으로 죄송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역사의 반성 위에서 와세다 대학은 아시아에서 ‘지식의 공생·공동창조’에 의해 아시아의 미래를 창조하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조선대와 와세다 대학이 교류협정을 통해 한일 양국의 협력과 우호에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사진=위직림기자 jrwi@kwangju.co.kr

조국현 조내과의원 원장 적십자회비 전달



조국현 조내과의원 원장은 23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나무석 회장을 방문, 2009 적십자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조 원장은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2004년부터 몸소 기부를 실천한 공로로 2006년에는 ‘적십자 회비모금 유공장 은장’, 2008년에는 ‘금장’을 수상했다.

광주시의회 사무처 김양금씨 부부 박사 됐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가치관에 따라 구성원들의 리더십이 향상되고 조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데 관심을 갖고 연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장애인고용 의무사업주 기업 지원설명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광주지사(지사장 박관식)는 24일 오후 2시 상무지구 한국도지사 3층 대강당에서 ‘장애인고용 의무사업주 대상 기업지원설명회’를 개최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광주지사 제공)

“천만금과도 못바꾸는 자식 교육”

순천 팔마초 하승범군 100만원 주위 아버지와 함께 주인 수소문... 둘러쥬

지난 20일 오후 7시30분께 순천 팔마 초등학교 5학년 하승범(사진) 군은 학원을 마치고 귀가 도중 한 식당 앞에서 현금 100만원이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하 군은 이 목친돈을 주위 집에 있는 아버지에게 갖다줬고 아버지는 “주인을 찾아줘야 한다”며 아들과 함께 돈이 발견된 식당 주변에서 잠시 서성거리며 흑시돈을 찾아내셨을지도 모르는 주인을 기다렸다.

아버지는 돈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식당에 들어가 돈 주인을 수소문했고, 마침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던 한 손님이 “어떤 할아버지가 조금 전 목친돈 100만원을 누군가와 주고받던데 그 할아버지 돈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해 아버지는 식당 주인에게 “돈 주인이 찾아오면 돌려달라”며 돈을 맡기고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아버지와 아들이 돈을 맡긴 지 10여분 뒤 70대 초로가 삼기된 얼굴로 식당을 찾아와 “현금 100만원을 잃어



버렸다”며 벌을 동동 굴렀다. 현금 100만원을 보관하고 있던 식당 주인은 금당지구대 경찰관과, 연락처를 남기고 집으로 돌아간 아버지와 아들을 식당으로 불러 이 할아버지가 돈을 잃어버린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100만원을 할아버지에게 돌려줬다.

양기환 할아버지는 하군과 아버지의 선행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례금’을 주려 했으나 하군과 아버지는 극구 사양했고, 이를 지켜본 식당 안에 있던 손님 20여명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이 같은 미담은 당시 손님이었던 김행영(59)씨가 순천시청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김씨는 “요즘 같은 각박한 세상에 주운 현금 100만원을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현장을 보고 정말 행복했다”며 “당시 손님들이 ‘아버지는 천만금과도 바꾸지 못할 살아있는 자식 교육을 했다’며 후회했다”고 전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파리에서 열린 고 이브 생 로랑 소장 예술품 경매에서 피카소 그림이 경매에 불여지고 있다. (AFP=연합뉴스)

‘용’ 안락의자 424억에 팔려

이브 생 로랑 소장품 경매 연일 신기록

경매 시작 전부터 ‘세기의 경매’로 불리며 관심을 모았던 프랑스 패션 디자이너 고(故) 이브 생 로랑의 소장품 경매가 연일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경매 이틀째인 24일에도 아일랜드 디자이너 에일린 그레이의 작품인 ‘용(龍)’ 안락의자가 2천190만유로(약 424억원)에 팔리며 20세기 가구 경매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총 1억100만 유로(약 1천957억원)어치의 물품이 팔려 ‘이브 생 로랑 파워’를 입증한 것이다.

프랑스 화가 테오도르 제리코의 유화 및 장 오귀스트 도미니크 앙그르의 작품 역시 이날 기존 경매가를 경신하며 팔려나갔다.

이로서 이브 생 로랑 소장품 경매의 총 판매액은 지금까지 3억700만유로(약 5천948억원)까지 불어났다. 이날

경매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1천200여명에 달했으며, 전화로도 100여명이 경매에 참여했다.

경매에 성공한 사람들은 저마다 ‘이브 생 로랑의 소장품’이라는 브랜드의 특별함을 예찬하고 나섰다.

‘용’ 안락의자를 낙찰 받은 받은 로버트·체스가 발루아 부부는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갈망에 대한 대가”라는 말로 낙찰의 기쁨을 표현했다.

이번 경매는 25일까지 계속된다.

내방

- ▲김용기씨(광주광역시체육회 상임부회장) ▲전학철씨(사무처장) ▲신이섭씨(광주상무프로축구단 단장)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동창·동문회

▲광주 승의고 제1회 동창회(회장 김강수)=26일(목) 낮 12시 별난부페, 062-224-1711.

▲석산고등학교 동문회 신년하례식 및 이사회=27일(금) 오후 6시 30분 상무지구 예벌루션웨딩컨벤션, 062-527-6770~1.

▲학다리 중·고등학교 동창회(회장 양한모)=27일(금) 오후 6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내 르네상스홀, 062-525-1352.

▲강진 일구삼삼회(회장 윤봉현) 정기총회=3월3일(화) 오후 6시30분 신우식당, 011-629-5410.

▲동심회 개최(회장 김재열)=3월 3일(화) 오후 6시 맛가식당, 062-523-5122.

▲광주시대부중 제4회 동창회(회장 전성수)=3월4일(수) 오후 6시

금남로 유명회관, 062-512-5574, 511-0383.

▲재광 목포공고 정기총회(회장 조광수)=3월6일(금) 오후 6시30분 삼목회관 4층, 010-3641-3850.

종친회

▲진주강씨 광주전남 중회(회장 조광수)=3월7일(토) 오전 11시 광주항교 유립회관, 062-228-3368.

향우회

▲재광 곡성군 삼기면 향우회(회장 김재정)=3월1일(일) 오후 6시30분 두암동 한우촌, 062-573-5900.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대 평생교육원 풍수지리학 무료 공개 강의=28일(토) 오후 2~5시 광주대 도서관 5층, 음, 양택, 수맥, 입향론, 장법요강 등 이론과 현상 제시(책자 무료제공), 062-670-2161.

▲한국약선전선홍원 약선강좌=16~26일, 서강정보대학 호텔조리부, 062-520-5098.

▲한국간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무료 금연교육 및 금연실천자 관리 실시=직장인 대상으로 흡연의 폐해, 금연 필요성 및 방법 강연, 금연보조제 및 상담. 문의 062-363-2240.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아동상담소 무료 상담=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24시간 출장 상담도 가능), 미혼모 시술 입소 안내, 062-227-8877.

▲비둘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예약제. 문의 062-652-1366, 062-434-1366 www.gene-korea.com

모집

▲광주 YWCA 산모·신생아도우미 교육생 모집=모집 기간 2월23일~3월4일(2주과정), 55세 미만 여성(주부 및 고령자), 모집인원 20명, 무료, 062-511-3336~7, 062-526-3338~9.

▲놀이때 ‘신명’ 단원 모집=연극·탈춤·풍물·소리 등에 관심 있는 젊은 남녀, 062-527-7295.

▲한국마사회 광주지점 문화교실 무료 수강생 모집=꽃꽂이교실(수·오전 10시), 노래교실(수·오후 2시), 댄스스포츠(목·오전 10시), 뜬사람(수·오전 9시30분), 062-410-5000.

▲회순 호사랑 노인복지센터 무료 방문 목욕 신청자 모집=중증이나 치매 등의 병으로 고령자는 환승 거주 노인들의 무료 방문 목욕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 문의 061-373-8865.

▲광주 아버지합창단원 모집=광주 거주 합창 좋아하시는 남성,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연습, 011-602-7354.

▲우리문화연구회 소리노리 풍물놀이 및 장구기초, 민요, 한춤 회원 모집=매주 월·수·금 오전 10시~11시, 화·금 오후 7시~8시30분. 초·중·고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임주체육관 11호 장구교실, 062-371-4242.

▲사랑모아 가족복지회 회원 모집=종이공예·독서모임·성교육 스터디 강사, 생활체육 배드민턴 회원 모집, 062-385-0422.

부음

▲조순화씨 별세 정병재(전남도 경제과학국장)·병조·순금·춘자·순심·영심·영숙씨 모친상 =발인 27일(금) 오전 10시 목포 중앙병원 장

례식장, 061-271-4444.

▲채만석씨 별세 치수·옥수·수광·오진·병현·병철·재현·병례·덕순씨 부친상=발인 26일(목) 그린장례식장 9분향소, 062-250-4409.

▲최락찬씨 별세 정아·현아씨 부친상=발인 26일(목) 그린장례식장 10분향소, 062-250-4410.

▲이재술씨 별세 이행·은주·은화·은경씨 부친상=발인 26일(목) 그린장례식장 7분향소, 062-250-4407.

▲추현배씨 별세 현규·현수씨 부친상=발인 26일(목) 학동금호장례식장 402호, 062-227-4314.

▲정양섭(한나라당 국제자문위원·세무사)씨 별세 용균(세무법인

넘버원 호남 분사무소 실장)·태균(호남병원 원무과 과장)·덕균(경향신문 편집부 기자)씨 부친상=발인 26일(목) 오전 8시 상무병원 장례식장, 062-600-7400.

▲고순심씨 별세 김주석(하나은행 지점장 퇴직)·주홍(건설업체)씨 모친상 윤영수(호상병원)씨 빙모상=발인 26일(목) 한국병원 장례식장, 062-380-3444.

▲윤유하씨 별세 오봉석·승준·정민씨 부친상=발인 27일(금)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안중식씨 별세 형태·병화·형길·형욱씨 부친상=발인 27일(금) 그린장례식장 12분향소, 062-250-4412.

Advertisement for '프리드' (Freedom) by Daegu National University, featuring a man in a suit and contact information: 1688-3740.